

6/11/17

설교 제목: 새 언약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8:7-13

- (히 8:7)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 (히 8: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 (히 8:9)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 (히 8: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ی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 (히 8: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 (히 8: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히 8: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본문은 모세와 율법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오직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속죄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옛 언약은 폐하여졌고 이제 새 언약이 세워졌음을 설명해 줍니다. 옛 언약은 모형이라서 한계가 있지만 새 언약은 실체인지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설명을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후의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고립되고 핍박을 받는 등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저들 마음 속에 그동안 믿고 따르던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으며 남아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새 언약을 설명해 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된다고 종용합니다.

본문은 단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 하거나 불신앙을 보이면 아니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로 치부해 버립니다.
마치 우리 자신은 그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양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속을 들여다 보면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 회의를 품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틈만 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언약에 대해 보겠습니다.

(히 8:7)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히 8: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7 절에서 옛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13 절에서 이제 새
언약이 세워졌으니 옛 언약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 절과 13 절 사이에 예레미야 31 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에 여기에 인용한 것입니다.

(렘 31:3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렘 31: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31: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31: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한대로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에 가운데 회복될 날만 손꼽아 기다렸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자 그런 소망마저도 다 잃어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옛 언약으로는 안되고 새 언약이 와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실패 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데 옛 언약으로는 안되고 새 언약이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히 8:7)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히 8: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은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흠이 언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은 온전한데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430 년간 애굽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 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일교차가 큰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하셨고 마실 물이 없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으며 농사를 지어 양식을 마련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하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하셨으며 광야 생활 40 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땅에 남아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불순종하고 배반한 이들을 당장 진멸하시는 대신에 선지자들을 보내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렘 7:23)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렘 7:24)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렘 7:25)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렘 7:26)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렘 7:27)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렘 7:28)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의해 존폐 여부가 결정되는 이 언약은 처음부터 지켜질 수가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백성들의 멸망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히 8:9)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히 8: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언약의 법은 다같이 율법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도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겔 11: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겔 11:20)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율법)을 돌판에 새긴 옛 언약과는 다르게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즉 성령을 부어 주어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율법을 지키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근본적으로 조건을 전제로 한 행위 언약입니다.

즉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옛 언약의 근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존폐 여부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언약의 존폐 여부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히 8: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으나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다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성취되는 새 언약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법대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징계의 매는 있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히 8: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새 언약 하에 있기에 우리는 죄를 짓고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면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리고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끝까지 견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 언약을 잊어 버리고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한 예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십일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만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줄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행위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있습니다.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 언약 받은 백성답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언약의 특권을 받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